"지눌… 나옹 … 초의가 맞다"

한국불교 법통 논란 재가열 될까?

허흥식 교수, 초의선사 탄생문화제에서 '태고 보우설' 반박

보조 지눌(1158~1210)

나옹 혜근(1320~1396)

초의 의순(1786~1866)

한국불교의 법통이 보조지눌로부터 나옹혜근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지난 5월 23일 전남 무안에서 열린 초의선사탄생문화제 학술세미나에서 허흥식(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사진) 교수는 '한국 선맥에서 대흥사와 초의선사의 위상'이란 논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허 교수는 이번 세미나에서 "고려 말 태고보우와 나옹혜근이 이어가던 한국불교의 선맥은 조선 초 나옹혜근의 문도들에 의해 회암사를 중심으로 이어졌다"며 "이후 보현사의 청허휴정과 대흥사의 편양언기, 초의선사로 법맥이 이어지며 대흥사 고승들이 조선 불교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나옹과 지공의 부도탑비와 청허휴정의 비문은 보현사의 선맥이 지공과 나옹을 거쳐 청허휴정으로 계승되고 있는 뚜렷한 증거"라며 "조선의 법맥을 태고보우를 거쳐 청허휴정으로 연결시키고 있지만, 보현사에서 이를 따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 허 교수는 "대흥사에 서산대사의 의발을 보관하고 표충사에 사액한 것은 대흥사에서 조선시대 선맥을 계승한 뚜렷한 증거"라고 밝혀, 그 동안의 태고보우설과 배치되는 주장을 했다.

이에 앞서 허 교수는 <한국중세불교사연구>(1994)에서 태고보우의 법맥을 이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환암혼수가 나옹혜근의 제자라고 주장하며, 나옹혜근설을 뒷받침했다. 허 교수는 "나옹의 문도를 수록한 자료 가운데 '안심사 사리석종비음기'나 '신륵사 석종비음' 등에 환암혼수 등 주요 제자들이 기록돼 있다"며 "그러나 태고의 비문에 당시 조계종 고승을 승직순으로 망라한 가운데 혼수가 포함돼 있고, 혼수의 비문에는 나옹에 대한 기록은 있으나 태고는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대한불교조계종 <종단법령집>의 종헌 전문과 제1조에서는 도의국사를 종조로 보조지눌과 태고보우를 중흥조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불교 법통에 대한 논란은 한국불교사연구에서 주요 논쟁 주제 가운데 하나로,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한국불교 선맥의 중흥조에 대해서는 보조지눌설(說), 태고보우설, 나옹혜근설 등 논쟁이 계속돼 왔다. 보조지눌설은 이재열, 이종익 교수 등이 태고보우설은 성철 스님, 지관 스님, 권상로 교수가 나옹혜근설은 1937년 활해 스님이 주장한 후 박봉석, 허흥식 교수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2002년 10월 한국선학회 학술대회에서 법산 스님(동국대 정각원장)은 조계종 종조를 중국의 육조 혜능으로 봐야한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멀게는 서산대사 이후부터 짧게는 1930년대부터 계속된 조계종의 법통설 논란에 대해 이제는 한국불교의 선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조계종 교육원에서 <조계종사>를 발간한데 이어 허 교수가 논문을 다시 발표하면서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김방룡(보조사상연구원 기획실장) 박사는 "조계종도 종단차원에서 종조와 중흥조 등 선맥을 확실히 정리해 조계종의 정체성을 확실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고대 금석문 자료 · 이미지 한곳에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시스템' 가동

고대 금석문(金石文)에 대한 판독과 해설 자료를 한 곳에서 검색해 볼 수 있는 '한국 금석문 종합영상정보 시스템(http://gsm.nricp.go.kr)'이 문을 열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는 2002년부터 진행해온 금석문 종합영상 DB 구축 사업을 통해 축적한 금석문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5월 31일 밝혔다. 금석문이란 비문, 불상명문, 목간, 와전명 등에 기록된 명문(銘文)을 말한다. 정확한 문헌이 적은 고대사를 밝히거나, 잘못된 문헌상의 오류를 바로잡아 주기도 해, 문헌기록과 함께 역사연구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들은 선사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까지의 금석문 699종에 대한 원문, 판독문, 번역문과 2천여 건의 탁본과 실물 이미지를 담고 있다. 탁본 이미지는 'Zoom VR(Virtual Reality ·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해, 이미지를 확대해도 실제 탁본을 보는 것과 같이 선명하게 볼 수 있다. 또 주요 금석문은 탁본 글자와 여백의 색상을 바꿔 볼 수도 있어, 글자 판독을 쉽게 했다.

특히 홈페이지에서는 갈항사 석탑기(국보 제99호), 감산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조상기(국보 제81호) 등 불상과 석탑 비문의 탁본 이미지와 해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 같은 기초자료 외에도 금석문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도 덧붙여, '금석문이란' '금석문산책' '금석문과 역사' 등에서 금석문의 종류와 내용, 가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한편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향후 3년간 고려시대 이후의 금석문에 대한 자료도 지속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혀, 관련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금석문에 접근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오유진 기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쌍계사 진감선사 대공탑비 탁본 일부.

문을식 씨 등 6명 논문 당선

제6회 진각논문대상

제6회 진각논문대상 당선작으로 6편의 논문계획서가 선정됐다.

진각종 교육원(원장 혜정)은 불교, 밀교, 진각종 교학 등 세 분야로 나눠 접수된 16편의 논문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불교 4편, 밀교 2편 등 총 6편을 제6회 진각논문대상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진각종 교학 분야는 당선작을 내지 않았다.

불교 분야는 △업보설과 회향사상의 비교연구(문을식) △근대중국의 불교부흥과 인문지식(김영진) △설일체유부의 육인오과설에 대한 나가르주나의 비판 연구(배경아) △19세기 서울 · 경기지역 불교사찰의 대방건축에 대한 연구(손신영) 등 4편이다. 밀교 분야는 △보리도차제론에 나타난 초기유가행파의 지관 연구(차상엽) △인도주석서에 의한 진실섭경의 유가수행 해명(정성준) 등 2편이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37>

생명과 선(4)

불가에서는 우리 안에 부처의 씨앗(佛種)이 있다고 하며, 유정무정 개유불성(有情無情 皆有佛性)이라고 하여 모든 것은 본래면목인 생명의 작용으로 나타남을 설하고 있다. 우리 안의 그 씨앗은 우리 안에서 숨죽이고 있는 것이 아니며, 항상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어 그것이 곧 우리의 어묵동정 행주좌와 중에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선(禪)이란 무엇인가?

비유하자면 귀 기울여 항상 작용하고 있는 그 생명의 소리를 듣고, 눈을 떠 그 생명의 소리를 보는 것이다. 언제 어느 때고 외부 조건이 어떠하건 조용한 자신의 마음으로 내면의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영혼의 소리를 듣는 것이 곧 선(禪)이다.

선법이지만 결코 간화선만이 선의 모든 것도 아니요, 일상의 삶 그 자체가 선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일상적 삶이 그대로 선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오직 깨어서 자신과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원래 면목의 모습을 향하여 자신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치성한 관념(識作用)을 쉴 수 있어서 항상 귀 기울여 자신 내부의 깊고 깊은 영혼의 소리를 듣는데 달려있다.

산사(山寺)에 가서 흔히 볼 수 있는 네 발밑을 돌아보라는 뜻의 조고각하(照顧脚下)라는 평범하고도 기본적인 이 한 마디가 바로 참선의 요체이다. 마음공부를 한다면 마음을 쉬고 쉬어 항상 스스로를 되돌아보아 보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없으니 특별한 것을 찾아

내 안의 불성 항상 활발히 살아 있어
내면 들여다 보면 '생활이 곧 선' 돼

우리는 선을 매우 관념적이고 추상화된 모습으로 받아들여 어려워한다. 그래서 선을 삶과 유리된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마치 네가 곧 부처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이 믿지 못하고 놀라며 어떻게 내가 그 높고 거룩하신 부처님이란 말인가 라고 생각하듯 말이다.

하지만 선이란 내 안의 생명(佛種)의 소리를 듣는 것이기에 그러한 행위야말로 반야심경에서 언급된 것처럼 반야바라밀을 깊게 행하는 것이며, 관자재보살은 이를 통해 모든 고액을 뛰어넘는다. 굳이 말로 하자면 선이란 그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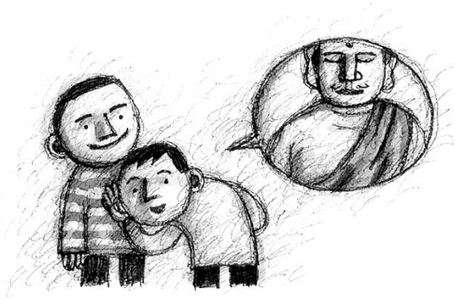
우리가 얼핏 선이라 할 때 그 대표적인 형태로서 화두를 통한 간화선을 연상한다. 물론 간화선은 참으로 좋은 참

밖으로 헤매거나 마음을 분주히 하지 않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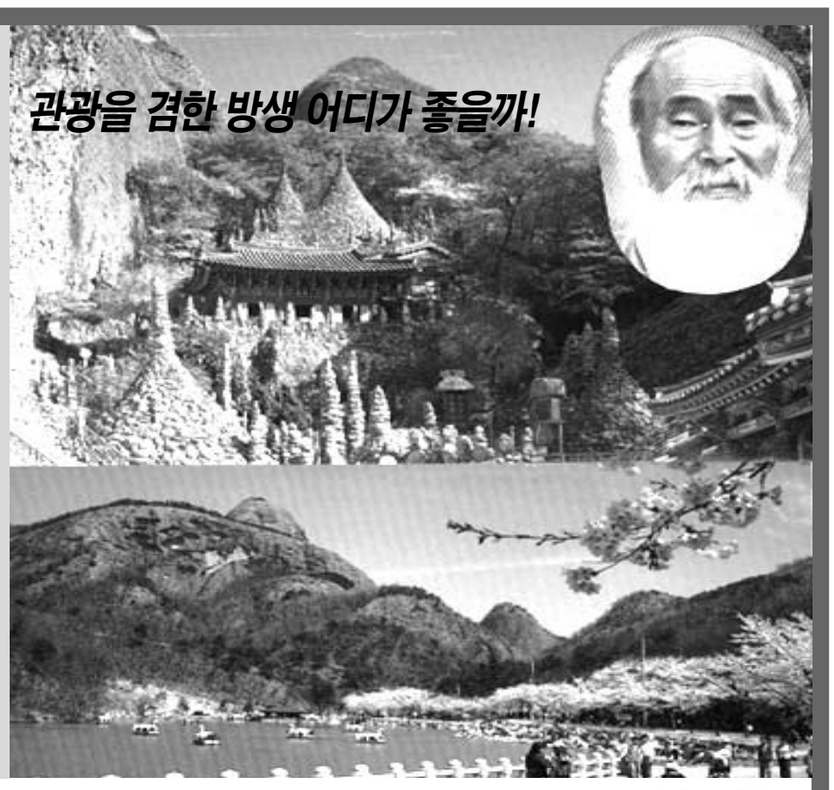
또한 마음공부에서는 그 과정과 목적지가 결코 둘이 아니기에 공부를 끝마쳤다는 잘못된 견해도 짓지 말아야 한다. 믿음과 용맹심 그리고 자신 내부를 향한 꾸준한 방향 전환으로 반드시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생명에 한 생각 일어나 삼라만상이 펼쳐지고 이 펼쳐지는 모습 속에 오직 연기(緣起)로 인하여 무명이 생기고 분주함이 생겨나니 부처가 생기고 불법(佛法)이 횡행하게 되었다. 삼세제불이란 무엇인가? 오직 선(禪)을 통해 생명의 바다 속에서 그 머무를 바 없는 기쁨을 맛 볼 수 있기에 부처님과 조사의 그 큰 은혜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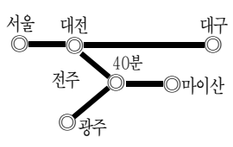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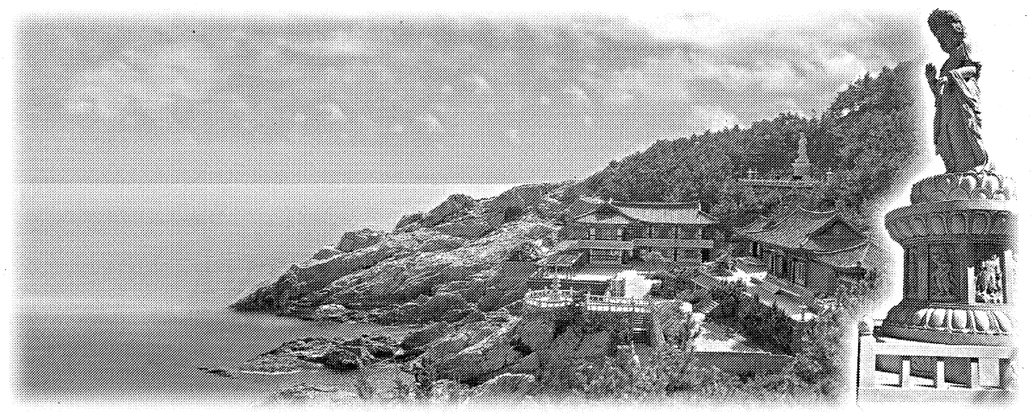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탑사
063)433-2900,0303
432-0652,0072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 주차장 완비
◀ 입장료 무료
◀ 점심공양 가능
◀ 방생물 배달해 드림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7755